

[바둑]

광주 KIXX '영파워' 빛났다

한국바둑리그 햄피언 결정전

■ 1차전

Kixx	승	패	한계임	결과
1국 흥민표	○	×	김영삼	흑 불계승
2국 박정상	○	×	온소진	백 불계승
3국 최원용	×	○	김성룡	백 불계승
4국 최철한	○	×	원성진	백 불계승
5국 이재웅	-	-	이영구	

'젊은 피' 광주 KIXX가 한국 바둑리그 정상에서 포효했다. 주장 최철한이 이끄는 KIXX는 최근 바둑TV 스타디오에서 열린 KB국민은행 2006 한국 바둑리그 햄피언 결정 2차전에서 경기 한계임을 3-1로 꺾고 정규리그와 포스트 시즌 1위를 독식했다.

KIXX는 바둑리그 출범 당시 선수 진용만으로 우승후보 '0순위'로 꼽혔다. 최철한, 박정상, 흥민표, 최원용으로 짜인 5명의 정예 멤버는 국가 대표 표호화 진용으로 주목받았다.

후지쓰배와 중한배 등 세계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박정상과 최철한, LG배 4강에 오른 흥민표, 물가정보배 우승자 최원용, 그리고 '속기달인' 이재웅으로 구성된 팀은 개인성적 만으로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주장 최철한 등 전원 84~85년생

위기마다 탄탄한 팀워크 빛 발해

출범 첫해 바둑리그 '왕중왕' 올라

특히 84년, 85년 생으로 친구나 다름 없는 멤버로 팀을 꾸린 것은 강력한 팀워크를 뒷받침하는 엔진으로 작용했다.

KIXX는 동년배끼리 구성됐다는 점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강점인 반면 정신적 리더의 부재는 젊은 팀이 지난 약점이기도 했다.

그러나 위기감이 싹을 때마다 주장 최철한을 중심으로 잣은 모임을 가짐으로써 팀워크를 다졌다. 이처럼 탄탄한 팀워크는 포스트 시즌에서 빛을 발했다.

정규리그 다승왕(12승2패)에 오른 최철한은 1차전 대국에서 동갑내기 라이벌 원성진을 물리치고 기선을 제압한데 이어 이를 날 2차전에서도 김영삼을 꺾는 등 승리를 견인했다.

1차전에서 벤치를 지켰던 이재웅은 최종국 파트너였던 한계임의 '필승카드' 이영구를 제압하는 끝으로 승리의 디딤돌을 놓았다. 흥민표는 우승을 확정지은 온소진과의 대국을 포함해 포



한국바둑리그 정상에 오른 KIXX 선수단이 우승을 확정지은 뒤 축하케이크를 자르며 환하게 웃고 있다. 박정상, 최원용, 흥민표, 최철한, 이재웅(사진 원쪽부터)

<한국기원 제공>

스트 시즌 2승으로 우승의 견인차가 됐다. 흥민표는 마지막 대국에서 온소진의 실착을 놓치지 않고 응징, KIXX의 우승을 매조지했다.

우승상금 2억5천만원을 챙긴 KIXX는 풍성한 '돈잔치'를 벌이게 됐다. 산술적으로 5등분할 경우 선수 개인당 국내 최고 타이틀인 GS칼텍스배 우승상금인 5천만원을 챙기게 된 것이다.

최철한의 경우 다승왕을 차지하면서 200만원의 가위돈까지 손에 넣게 됐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어린이 바둑학습만화 나왔다

한국기원·프리즘M&B

국내 첫 '격투 바둑왕' 출간



한국기원과 프리즘 M&B가 국내 최초 어린이 바둑만화 '격투 바둑왕'을 출간했다.

'격투 바둑왕'은 일본에서 출간돼 어린이 바둑붐을 일으켰던 '고스트 바둑왕'의 한국판이라 할 수 있는 바둑 만화다.

모두 20권이 출간될 예정인 격투 바둑왕 시리즈 1권에서는 악마 벨제브루와 사단의 지구침공에 맞서는 선인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선인들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무의미한 전쟁보다는 격투 바둑으로 승부를 낼 것을 제안, 바둑대전의 서막이 오른다.

이 책의 저자인 김제현씨는 지난 1989년 등단한 뒤 '불멸! 라이덴', '흉길동 네오', '이야기 동양신화' 등 50여편의 만화를 출간했다. <윤영기자 penfoot@korea.com>

/ 월간바둑 신작 '2006 바둑계 10대 뉴스' /

한국기원이 발간하는 바둑 전문지 월간바둑이 2006 바둑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2006년 한 해 동안 바둑계 가장 큰 뉴스는 조남철 9단의 타계 소식.

지난 7월2일 숙환으로 별세한 조남철 9단은 한국인 최초의 프로기사이다. 일평생 바둑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한국 현대바둑의 개척자다.

2위는 대한바둑협회의 대한체육회 준기맹 소식이 차지했다. 대한바둑협회는 5월16일 체육회 이사회에서 준기맹 경기단체로 승인됐으며, 이는 지난 2002년 1월 한국기원이 체육회의 인정 단체가 된 지 4년 4개월 만의 일이다.

총 규모 30억원으로 한국 바둑사상 최대 규모 기전으로 업그레이드 된 한국바둑리그 출범 소식이 3위로 꼽혔다.

4위는 그 동안의 부진을 털고 국내 외 기전에서 맹활약하며 일약 종합 5관왕으로 부상한 이세돌 9단 관련 뉴스가 차지했다.

① 조남철 9단 타계

③ 한국바둑리그 출범

④ 이세돌 5관왕 급부상

⑩ 15줄 바둑판 첫 출토

이 9단은 GS칼텍스배와 한국물가정 보배, KB바둑왕전, 맥심커피배에서 우승했으며 제3회 토요타엔소배 세계대회 결승에 진출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현재 74승 27패, 승률 73.3%로 최다승, 최다 연승(14연승)에 이어 승률부문에서도 수위를 다투고 있다.

5위는 한·중 국가대항전에서 국내 최대기전으로 탈바꿈한 강원랜드배가 차지했다.

이밖에 6위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기전(여류기성전)을 창설하고, 바둑공원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 부안군 기사가, 7위에는 후지쓰배에서 생애 첫 세계대회 우승을 달성한 박정상 9단의 소식이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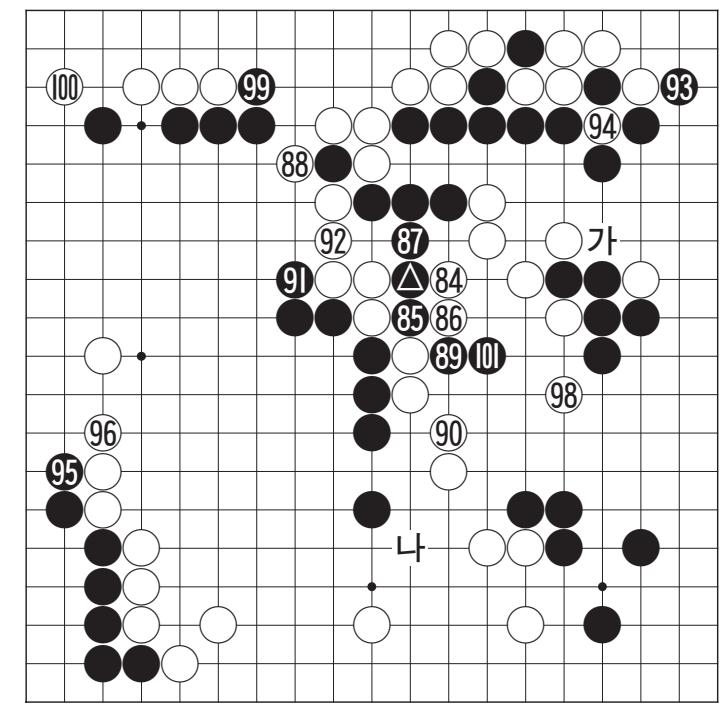
세계 66개국 아마추어 기사들이 출전한 제1회 국무총리배 세계아마선수권 대회, 중국바둑의 대야진이 8위와 9위에 선정됐으며, 10위로는 경주에서 출토된 세계 최초 15줄 바둑판이 올랐다.

제18회 이창호杯

전국 아마 바둑
선수권 대회白 조민수 7단
<전남>

자만의 일차 백 90

6보(84~101)

黑 김호진 5단
<서울>

'참고도'의 흑 1을 선수하고 3으로 뛰어 잡으려 오더라도 백 4로 붙이는 묘수로 12까지 훌륭하게 살 수가 있다.

이것으로 흑의 계획은 빗나갔다. 이제 다급해진 흑은 93으로 패를 굽복시켜 백이 '가'로 밟고 내려오는 수를 방지해야만 한다.

조민수 7단은 유리하다고 생각했는지 98로 중앙을 차지하는 여유를 보인다. 98은 또한 흑이 '나'방면에 선수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도 있다. 이곳이 강해지면 중앙의 흑 대마에 집중포화를 퍼부을 수도 있는 것이다.

김호진 5단이 고집끌에 흑 ⑤로 불어 선수로 우변을 지켜보려는 생각인데 조민수 7단의 응수에는 추호의 빈틈도 없다.

흑 89로 끊어았을 때 백 90으로 침착하게 지킨 수는 관전객들의 탄성을 자아낸 자만의 일작이다. 이수는 백 두 점을 살리면서 위쪽 백 대마의 삶을 확인한 호작으로 흑이

<오규철 9단·본부 바둑해설위원>

생활의 중심 SK telecom 한국마사회

첨단월계공인증개사

☎ (082) 4585 훈 011-804-6205
(첨단지구 부동산 LC빌딩 사거리)

금보부동산컨설팅

☎ (02) 861-8949 훈 011-802-2233
(부구 우산A 문화초등학교 경인)

금천공인증개사

☎ (02) 911-9600-4563

투자추천물건

● 블록 출입동 900평

● 미술관 출입 900평

● 디밍하고서 전 500평

● 도로변 1000평 1인당

● 정성군 진원면 답

● 2차전도로 2000평 × 13면원

● 2차전도로 1000평 × 13면원

● 첨단지구 과기원 열자연지

● 160평 × 57면원 아령도로

● 블록 출입 180평 × 25면원

● 4세대 도로변 900평 × 120면원(다용도)

● 이주재택 1인당

● 첨단지구 과기원 열자연지

● 100평 × 25면원 2면원

<div data-bbox="265 1166 343